

“ 광주를 일본문화 교류 거점 삼겠다 ”



일본 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고지마 히로유키 소장

을 상반기 광주에서는 다양한 일본 문화를 접할 수 있다.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가 광주에서 전시회, 콘서트, 영화제 등을 잇따라 마련한 덕이다. 행사를 준비한 고지마 히로유키(48) 일본 국제 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장을 서울 사무소에서 만났다. 지난해 10월 한국에 부임한 그는 27살 때 한국 일주를 하면서 광주를 찾은 적이 있다고 했다. 지난 1월 광주방문 때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홍보관에서 접한 전당 규모 등에 대해 많이 놀랐다는 말도 전했다. 또 기자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과 관련한 사업 규모 등을 물려주자 메모를 하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롯데 갤러리에서 열리는 전시회를 시작으로 영화제와 콘서트 등이 열린다. 각각의 사업을 소개해 달라.
▲롯데갤러리(3월21일~4월10일)에서 열리는 전시회는 일본의 대표적인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관화가인 나가이 가즈마사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전시회다. 롯데갤러리는 지난해 우끼요에전을 진행한 적이 있는 등 우리 재단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해온 곳이다. 상반기 중 광주 극장에서는 세계 영화계의 거장인 구로사와 아카라 작품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극장 역시 오즈 야스지로전을 함께 여는 등 좋은 파트너 역할을 해온 곳이다. 영화제에서는 '라쇼몽', '7인의 사무라이' 등

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들이 일본과 어떤 교류를 하길 원하는지.
▲1월에 광주를 방문했을 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홍보관을 찾았었다. 공사 현장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홍보관에 비치된 모형이나 영상물만 봐도 그 규모가 상당한 듯해 많이 놀랐다. 아시아문화전당은 한국 문화를 세계로 발산하고, 아시아 각국의 문화가 교류되는 장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일본의 공연 단체, 전시 등 교류도 이뤄졌으면 좋겠다. 우리 재단이 직접 관여할 수도 있고, 문화청 등을 통해 다리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에 일본 문화를 광주에 소개하는 데, 광주의 다양한 문화를 일본에 소개할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다.
▲일반적 교류보다는 상호 교류가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 재단이 관여해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을 일본에서 공연한 적이 있다. 일본에서도 광주비엔날레의 인지도는 아주 높다. 광주가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전당도 들어서니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등 앞으로 다양한 교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일본국제교류기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달라.
▲1971년에 설립된 단체로 서울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 23개 사무소가 있다. 예술 문화 교류, 일본어 교육, 학술교류 등이 주 사업이다. 전남대 일본어연구소 등이 학술 교류의 주 파트너다. 또 환경, 고령화 문제 등 세계 각국의 공통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장도 마련하고 있다.
교토대학 문학부를 졸업한 후 1992년 일본국제교류기금에 입사한 고지마 소장은 마닐라 사무소 부소장, 북경일본문화센터 부소장 등을 거쳤다.
/서울=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3월부터 광주서 전시회·콘서트·영화제 개최

“문화전당, 일본 등 아시아 문화 소통의 장 기대”

-올해 광주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광주시민들에게 일본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듯하다.
▲사무소는 서울에 있지만 여러 지역을 거점 삼아 균형감 있게 활발한 활동을 펼치려고 한다. 광주도 그 중심도시 중 하나다. 특히 부산과 제주에는 일본 총영사관이 있어 한국 동부쪽에서는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는데 광주를 서쪽 라인의 거점으로 만들어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전개하려 한다. 지난 1월에 광주를 방문했을 때 금호아트홀과 광주극장 등 사업을 전개할 파트너들을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광주에 들어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구로사와 감독의 대표작 14편 정도를 상영할 예정이다.
-금호아트홀에서 열리는 클래식 음악회는 광주에서 처음 접하는 행사다.
노가와 아이메 재단이 후원하는 클래식 연주회로 올해 6회째를 맞는다. 4회까지는 모두 서울에서만 공연이 열렸고 지난해 지방공연으로는 처음으로 대구에서 개최됐다. 광주와 서울에서 진행되는 올해 공연에는 쿠리타 아사오(피아노), 김원호(바이올린), 사바카 세리나(첼로) 등 스위스 바젤에서 유학했던 유명 연주자들이 참여한다.
-광주에 들어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이힐, 여성을 말하다

갤러리 생각상자, 28일까지 이매리 초대전

갤러리 생각상자(광주시 동구 소태동)는 이달 말까지 레드 하이힐 이미지가 떠오르는 서양화가 이매리씨 기획초대전 'Portraits of Shoe'를 개최한다.
그동안 하이힐 이미지를 통해 여성성을 담아온 이씨는 이번 전시에서 100호 이상 작품 20여점을 선보인다.
작가는 넓은 화폭 안에서 하이힐을 보여 주면서 여성의 굳건함을 이야기 한다. 동시에 하이힐이 지나간 흔적을 통해 이면의 수많은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들려준다.
또 하이힐과 함께 그동안 이씨가 다뤄

왔던 화이트 박스, 바다이미지가 한 공간 안에서 어우러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연작 시리즈처럼 잘 배열된 작품들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스토리 전개를 가능하게 만든다.
강진 출신으로 목포대와 조선대 대학원을 졸업한 이씨는 서울과 뉴욕, 베이징 등에서 16차례의 개인전을 열었다. 지난해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소피아 페이퍼 아트 페스트(Sofia Paper Art Fest)' 연례전시회에서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문의 062-676-8986.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Portraits of Shoe'

‘달달한’ 작품으로 사랑고백 어때요

화순 소아르갤러리 내달10일 까지 '4 in LOVE' 전

2~3월 사랑 고백 시즌을 맞아 케이크처럼 달콤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화순 소아르갤러리는 다음달 10일까지 서울과 지역 작가 4명을 초대해 '4 in LOVE' 전을 개최한다.
달콤한 이미지를 연상하게 하는 작품들

은 광범위한 사랑의 개념을 되새기면서 이미지 내면에 감춰진 의미들로 프리포즈를 건넨다.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종필, 정연연씨는 이미 중앙화단과 온라인에서 잘 알려져 있다. 박씨의 사실적인

케이크 시리즈는 달콤함과 화려함으로 눈을 사로잡으면서 진짜와 가짜에 대한 경계를 허문다.
서영기, 조선아씨는 작품활동 외에도 지역에서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서씨는 작품에서 형형색색의 사랑과 피임기구를 이용해 세태를 풍자했다. 문의 061-371-8585.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서영기작 '정의하기'



박종필작 'cake 16-2'



박종필작 'cake 24'

이상화·이광수 미발표 작품 발굴

근대서지학회, 시·수필·단편소설 공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로 유명한 민족저항시인 이상화(1901~1943)의 시와 수필 그리고 '무정'의 작가 이광수의 단편소설이 새롭게 발굴됐다.
근대서지학회는 '근대서지' 최신호(6호)에 알려지지 않은 이상화 시인의 시 두편과 수필 한 편을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

되는 작품은 잡지 '문예운동' 2호에 발표된 '설어운 調和(서러운 조화)'와 '머-나 企待(먼 기대)' 등 시 두 편과 수필 '心境一枚(심경일매)'다.
염철 경북대 강의교수는 '설어운 調和'에서 "한울(하늘)은 땅과 마찬가지로 가위에 눌리는 힘없는 존재로 인식될 뿐"

이라면서 "제목 '설어운 調和'는 이처럼 힘이 없어서 가위에 눌릴 수밖에 없는 하늘과 땅의 서러운 처지를 두고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새롭게 발굴된 춘원(春園) 이광수(1892~1950)의 작품은 일제강점기 '방송지우'와 '일본부인'(조선판)에 발표한 '면화'와 '反轉(반전)'으로, 1940년대 한글로 발표된 단편이다.
최주한 경기도대 교수는 "'방송지우'와 '일본부인'(조선판) 소재 이광수의 단편들은 전쟁 동원을 위한 선전계몽 잡지에 게재된 것으로 시국 협력의 문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since 1982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국제 보청기의 정성은 고객 만족입니다

☞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謹賀新年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62)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90,000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